

공연 제목 :

**Diffusion** (디퓨전) 약 23 분

공연 기본 정보 :

1 월 14 일(목), 15 일(금), 16 일(토)

5 시, 6 시반, 8 시 3 회차, 3 일 총 9 회차

관객 수 - 총 8 명

공연 구성 :

**Part 1 (6'33") + Transition 1 (1'30") + Part 2 (5'10") + Transition (1') + Part 3 (9')**로 구성

파트는 세 부분이지만 한번에 약 23 분 쪽 진행.

**Audio Score** - [Merged Version click](#)

Cello + Speaker 1

Viola + Speaker 2

Violin + Speaker 3

## **Scene ONE : 어둠 속의 빛 (연주자의 자율성 10%)**

첫번째 파트는 연주자의 자율성은 10% 정도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른다.

다양한 테크닉과 불규칙한 리듬 보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섞일 수 있도록 연주한다. 리드믹 베이스로 나오는 펄스는 느끼지만, 대체적으로 파트 원은 느리고, 정적인 느낌의 자유 연주를 한다. (예를 들면, 긴 slur, Legato 등 등 짧은 음과 리듬의 구성보다는 길고 느린 리듬으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Open String C, G, D, A, E 만 이용할 것)

파트 원에서는 연주자들과의 소통보다는 각 지정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에 좀 더 집중해서 연주한다.

첼로 - 비올라 - 바이올린 순서로 자유 연주(improvisation)를 이끈다.

각 악기가 자유 연주를 할 때 나머지 두 악기도 cue sound 가 나오는데 sound 를 듣고, open string C,G,D,A,E 중에 두 음 연주.

자유 연주 파트 : Cue sound 를 듣고 까지 음을 지속해서 연주하다, 다음 cue sound 가 나오면 다른 음으로 갈 것.

파트원에서는 연주자들의 자리 이동 없이 정해진 곳에서 연주를 한다.

**Transition 1** : 첼로는 가운데로 자리를 이동한다.

## **Scene TWO : 빛의 움직임** (연주자의 자율성 40%)

파트 투에서는 연주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 뜻은 정적이었던 소리가 전보다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며 움직임을 하길 바란다.

대략적인 동선의 이미지는 뒷장에 첨부!

두번째 파트는 첼로가 중앙에서 리드믹 펄스를 느끼며, 전체적인 베이스를 잡아준다.

비올라와 바이올린은 공연장을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이끌려 이동한다. (각각 총 9 번의 이동이 있을 예정!)  
본인과 지정된 speaker에서 나오는 cue sound를 듣고 이동하며 연주. (다음 사람의 cue sound가 나올 때 까지 연주 후 멈춘다.)

파트 투는 서서히 규칙적인 모티브에서 벗어나며, 슬러, 레가토와 같은 긴 음들 보다는 보다 다양한 리듬이나 모티브로 구성한다.  
여전히 Open string 사용하여 연주하지만 C,G,D,A,E 음들과 까지 연주자들의 재량에 따라 사용한다.

**Transition 2 :** 이 구간은 다음 파트로 점점 고조 되어가는 부분

### Scene THREE : 어둠 속에서 유명한 빛 (연주자들의 자율성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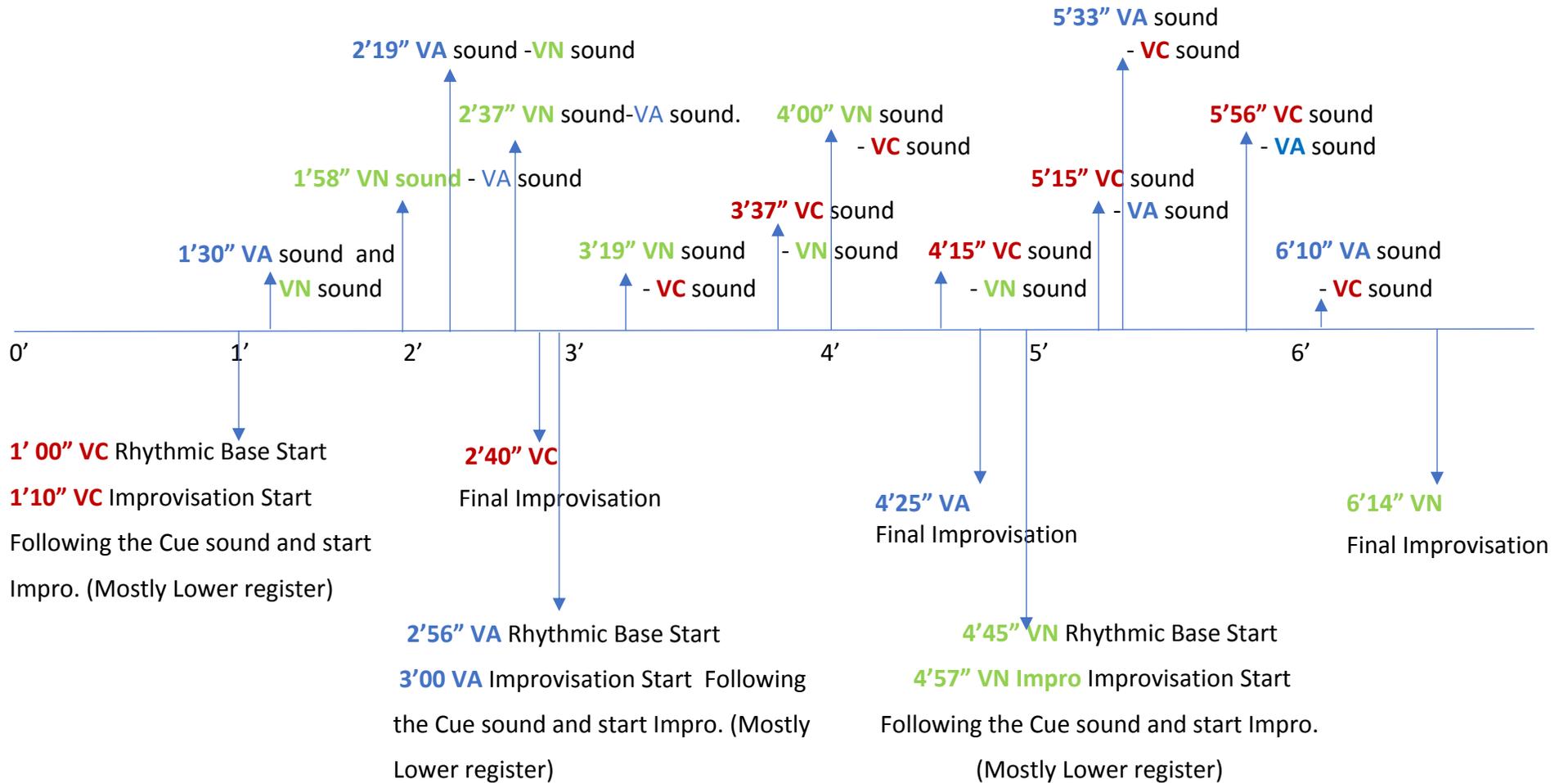
마지막 파트는 전체적으로 불규칙, 무질서, 우연성 등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어느정도 반응은 하지만 좀 더 연주자들의 소통과 움직임에 좀 더 집중된 파트이다.

특히 리드믹한 베이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연주자들의 움직임만 이끌 cue sound 나오는 구간은 연주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다양한 연주를 하기를 바란다. 각자의 Speaker 에서 본인의 signal sound 가 나올 때 Impro 를 리드한다. 한명이 리드를 시작 하면 나머지는 리드에 따라 연주한다. 이 구간에는 open string , harmonics 포함 C, G, D, A, E 의 음들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여 연주. 각 연주자들의 cue sound 구간의 시간은 15-30 초 사이 정도로 길지 않으므로, 가능한 짧은 motive 를 한다. 전체 연주 중에서 특히 연주자들의 자율성을 가장 많이 표현하길 바라는 구간 이기 때문에 리허설 과정 중에 추가적인 수정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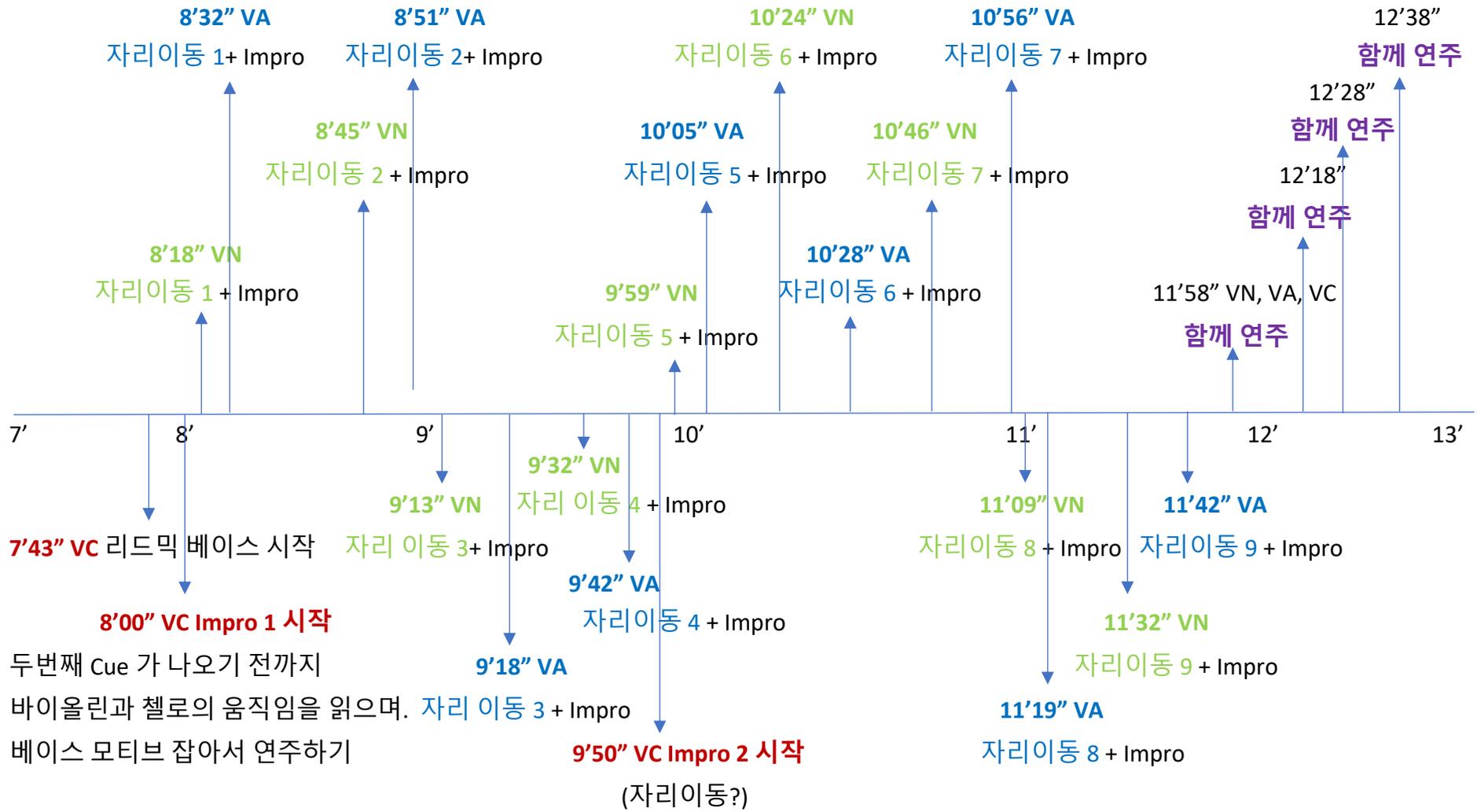
Speaker 와 볼륨 조정은 하겠지만, 이 Scene 에서는 연주자들이 최대의 볼륨과 gesture 를 끌어내는 연주를 한다. 다양한 technique 들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Pizz, Bartok Pizz, TREMOLLO, Spicatto 등등)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반응 하는 것이며, 리허설 과정 중에 조금 더 구체화 시키겠지만, 공간을 가장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연장 전체를 사용하여 연주한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연 타임라인과 cue sound 시간대가 표기 되어있다. 연주자들은 각자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cue sound 를 듣고 연주한다. 정확한 시간대를 표기한 이유는 리허설 전 미리 음원을 들었을 때 연주자들이 본인들의 cue sound 를 듣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절!대! 절대절대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 없음 ! 음원들을 때 참고하시길!!>

# Scene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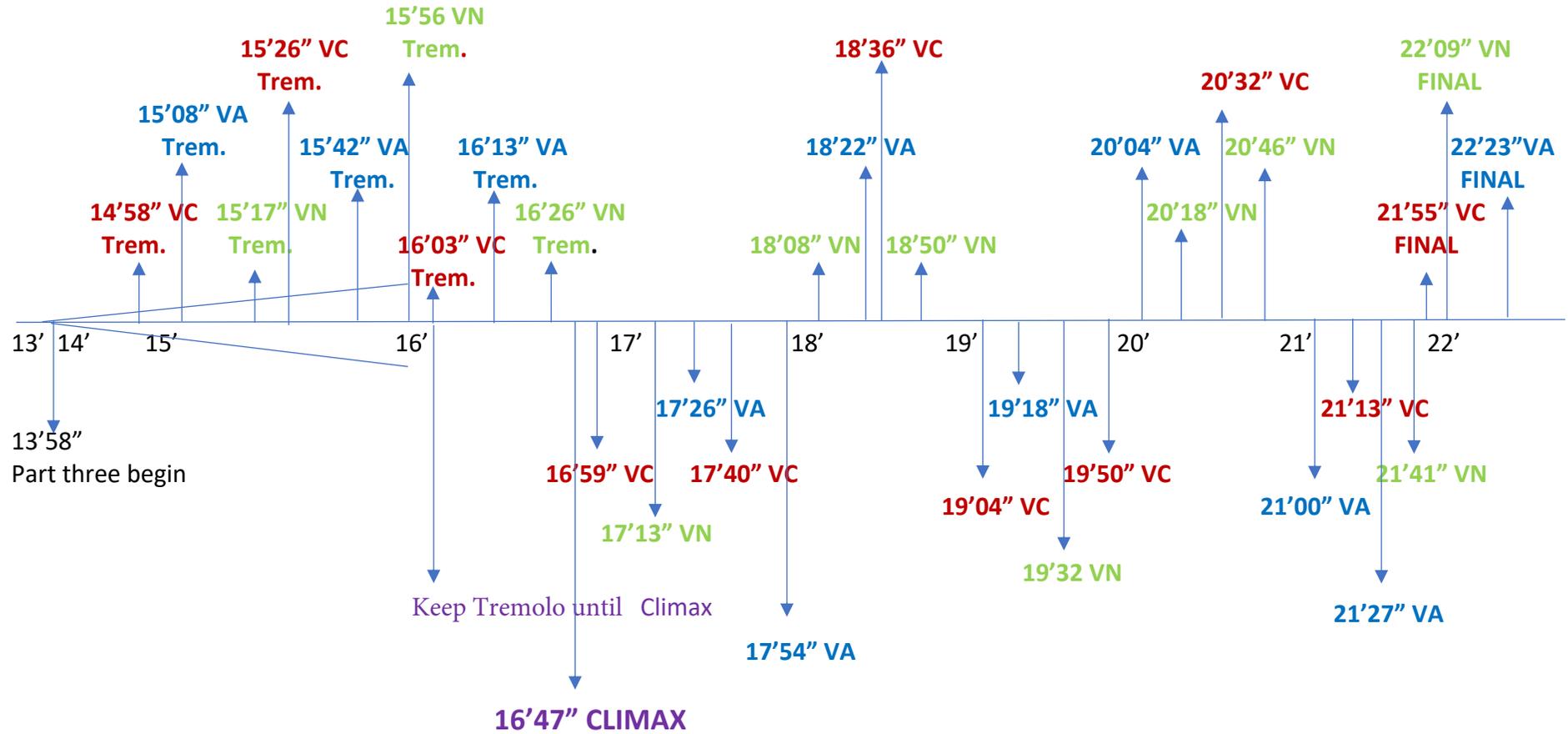


# Scene TWO



두번째 Cue 가 나오기 전까지  
바이올린과 첼로의 움직임을 읽으며,  
베이스 모티브 잡아서 연주하기

# Scene THREE



# Overall Sound plan

